

읽을 내용 (Article): 복음은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The Gospel helps us fight fairly)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 또한 우리 밖으로도 흘러나와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만큼 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깊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갈등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갈등은 당신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일원이나 혹은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때 벌였던 말싸움의 상황(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했던지, 둘 중에서 누가 옳았던 것인지 등)은 잠시 옆으로 미뤄 놓고, 그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행동은 아마도 아래의 두 가지 부류 중 하나에 속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형(attackers)입니다. 그들은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정의(justice)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공격형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싸인들입니다.

- 당신은 분노나 좌절감을 느끼면 그걸 표출해야만 합니다.
- 당신은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주장합니다.
-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 당신은 끝을 볼 때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 당신은 갈등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법정의 변호사처럼 반대신문을 하듯이 상대방을 추궁합니다.
-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 당신은 논쟁이 당신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어도, 논쟁의 초점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려 합니다.

공격형의 다른 쪽에는 회피형(withdrawers)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방어적인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논쟁을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면 그들은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게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회피형이라면 아래의 패턴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 당신은 분노나 불만을 참으려 합니다.
- 당신도 의견이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 당신은 “우리가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돼?”, “그것이 중요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 당신은 싸울 일이 있으면, 이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당신은 가끔 ‘생각할 여지를 갖기 위하여’ 논쟁의 장소에서 아예 떠납니다.

위와 같은 행동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상처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 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간에 있었던 언쟁을 통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쟁은 초대 교회의 교세가 예루살렘 너머로 확장되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개종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유대교 전통의식의 일부를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에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레나 제한된 식사규범 등의 유대교식 관습을 꼭 지켜야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유대 관습에 얽매임이 없는 이방인 출신의 새로운 크리스천들을 포용할 만큼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였습니다(행 10:9-48 참조). 그러나 그가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 되자 베드로는 큰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율법주의 선생들은 새로 개종하여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관습들과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던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베드로의 시도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그가 그들의 신앙(beliefs)에 동조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나바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방인들 편에 선다고 선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여 하나됨을 파괴하는 위선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런 행동을 보았을 때, 바울은 자신이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 문제를 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냥 화부터 내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방식의 화해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다음의 성경 본문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진 않지만,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와 이 문제를 풀었는가에 관한 내용은 복음중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갈 2:11-14, 현대인의 성경]

11. 그런데 베드로(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12.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13.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먹은 채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14.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의 행동에서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회피하거나 뒤에서 수근 거리거나 그를 헐뜯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직면했습니다. 즉, 자신과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이 경우 이같은 대면은 공개적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경우 공개적인 죄였고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바울은 이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동기는 자기방어나 자신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함 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갈 2:14). 하지만 바울은 복음과 교회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했기 때문에 공격(attack)이나 회피(withdraw)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베드로의 응답을 요청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갈 2:14 후반절).

이러한 종류의 복음중심적 대응(confrontation)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심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우리 위에 부으시거나(공격 attack), 당신의 임재하심을 우리로부터 거두어가지(회피 withdraw) 않으셨습니다. 그대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희생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직면하시고, 관계속으로 초청하시고, 화해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적 갈등해소의 패턴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동기(사랑), 확신(믿음),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혜와 진리)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고 회피하는 죄성의 패턴으로부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권능 가운데 믿음을 통해 겸손히,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갈등을 대면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 보통 방법을 버리고, 복음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